

日本 石油産業活性化센터 신설의 배경

최 근 日本의 정유업계는 휘발유·灯油 등 석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정제시설의 처리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수입 석유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많이 드는 정제시설을 처분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최근 경영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日本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수입의 자유화를 계기로 정제시설의 처리에 의한 체질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日本정유업계는 과잉설비의 폐기와 석유제품의 수요창출을 통해 체질강화를 꾀하고 있다. 通産省·資源에너지廳은 업계의 체질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石油産業活性化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센터는 日本石油連盟에 가입한 29개 회원사가 약 10억円の 자금을 출자하여 오는 5월에 설립된다. 또 資源에너지廳은 活性化센터의 설립을 위해 올해에 石炭·石油특별회계에서 50억 4천만円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石油産業活性化센터는 주요사업으로 ① 정제시설을 폐기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고(86년 예산에 총 14억 7천 3백만円 계상) ② 시설폐기 자리를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이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며(86년 예산에 10억 5천만円 계상) ③ 석유제품 수요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보조금을 지원(86년 예산에 21억 1천 7백만円 계상)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현재 日本 정유업계는 총 4백 79만B/D의 정제시설을 갖고 있다. 이중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65%에 불과하며, 1백 74만B/D가 유휴상태이다. 資源에너지廳과 업계는 活性化센터를 활용, 유휴시설중 70만~1백만B/D의 정제시설을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 폐기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예정대로 달성될 경우, 日本정유업계의 가동률은 80% 수준까지 향상될 전망이다.

가동률 80% 수준은 歐美석유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歐美석유업계의 가동률은 西獨 83%, 美國·英國이 각각 76%로 높은 편이다.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로 증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日本 석유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동률을 歐美수준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잉시설의 유지는 정유회사에 큰 원가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석유제품 코스트의 대부분은 과잉시설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80년 상반기중 日本 석유업계의 경영실적은 무려 1천 7백억円の 적자를 기록했다. 34개社中 23개社가 적자를 낸 것이다. 日本 석유업계의 경상이익률도 제조업평균 5%에 비해 13분의 1 수준인 0.4%에 그치고 있다.

석유업계는 체질강화를 위해 지난 81년부터 과잉시설폐기에 나서 현재까지 1백만B/D 정도의 시설을 폐기했다. 그 결과 시설가동률은 83년에 60% 선까지 향상되었으나, 그 이상의 폐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것은 정유회사들이 원유를 수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비지 정제주의에 집착하여 제품을 조금이라도 많이 생산, 수익을 개선하려고 생각하여 自社の 정제시설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또한 과잉시설을 폐기하여 적정규모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요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품수요 창출을 위해 石油産業活性化센터를 이용, 나프타, 灯油를 에너지源으로 하는 연료전지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기간은 5년, 개발비는 총 40억~50억円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품수요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앞으로 5, 6년 후에는 현재의 연간제품수요 1억 8천만kl의 10% 정도까지 신규수요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